

✓ **박, 호남 득표율 10% 벽 넘을까**

■ 판세와 관전포인트

✓ 수도권·PK 민심 향방

✓ 승패결정 전 40대 표심

✓ 보수 대 진보 세불리기

9일 대선이 'D-10'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대세론 굳히기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관세 뒤집기 전략이 정면 충돌하는 판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안철수 전 후보가 문 후보 지원에 나선 이후 여론조사론 큰 폭의 지지율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문 후보의 추격전이 시작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매경이코노미 등이 지난 3~4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박 후보가 여전히 앞서는 가운데 두 후보의 격차는 6.6%포인트에서 3.3%포인트로 좁혀졌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JTBC와 리얼미터가 7~8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다자구도시 박 후보 51.1%, 문 후보 42.0%로 두 후보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수도권·PK의 향방은=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D-10일 현재 수도권 부동층은 다른 지역보다 많은 1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수도권 유권자가 2000만명이라는 점에서 이들 부동층이 박빙 속 최대 변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층의 절반가량이 안 전 후보의 사퇴로 발생한 신(新)부동층으로 여겨지는 만큼 문 후보로의 쏠림 현상을 내다보는 시각도 있다.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PK 민심의 향배도 오리무중이다. 문 후보는 한때 PK에

서 40%대의 지지율을 얻었으나 현재는 35% 안팎의 지지율로 내려앉은 상태다. 따라서 문 후보는 40%대 회복에, 박 후보는 문 후보를 35% 이하로 묶어두기 위한 사력전이 예상된다.

◇박 호남 10% 벽 넘나=박 후보가 호남에서 두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할지도 관심이다. 최근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10%의 벽을 넘는데 실패했다. 다만, 박 후보가 국민대통합을 내세워 한광국·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를 영입하는 등 호남 구애를 해왔다는 점에서 새 기록 작성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는 호남에서 12.6%의 지지율로, 후보 결정 이후 호남에서 줄곧 두 자릿수 지지율을 고수했다.

하지만 호남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박 후보가 호남 득표율을 10% 넘기

기 어렵거나 10% 초반대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40대 표심=이번 대선은 연령별 대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는 보수 성향이 강한 50대 이상과 진보적 색채를 띠는 2030의 맞대결로도 요약된다. 박 후보 지지층이 두터운 50대 이상과 문 후보 지지층이 몰린 2030 유권자 규모는 비슷한 수준이다. 결국 이들 연령대의 중간에 위치한 40대가 승패의 열쇠를 쥔 셈이다.

◇보수 대 진보 총력전=보수 대 진보의 격돌은 지난 2002년 대선 이후 10년 만이다. 박 후보는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 등을 끌어들이며 범보수연합을 구축했고, 문 후보는 국민연대 및 문-안-심 연대를 통해 범진보연합을 형성했다. 양 진영의 결속력은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박, 수도권 총력전·40대 공략·文과 차별화 집중

문, 文安沈 연대·민생·새정치·투표율 제고 ‘올인’

■ 박-문 캠프 종반전략

12·19 대선이 종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9일 대선 승리를 위한 필승 전략을 마련, ‘굳히기’와 ‘뒤집기’에 들어갔다.

박 후보의 종반 전략은 ‘민생 대통령 박근혜’를 강조하고 부각시키는데 변함이 없다는 게 선대위 관계자들의 말이다. 박 후보의 D-10 전략은 ▲수도권 집중 ▲40대 공략 ▲문 후보와의 차별화로 요약된다.

무엇보다 먼저 수도권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은 유권자의 절반 정도가 모인 최대 표밭인 동시에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이른바 바람의 진원지로 불린다.

세대별로는 취약층인 2040세대 중 2030세대보다는 40대를 중점적으로 공략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는 앞으로 문 후보를 민생보다는 정치공학자적 정권교체만 생각하는 후보로 규정하는 동시에 자신의 민생대통령론을 더욱 부각시키면서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가 ‘문재인-안철수-심상정 연대’에 대해 “민생정책부터 대북정책까지 생각과 이념, 목표가 다른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권력다툼과 노선투쟁에 세월을 다 보낼 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강조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문 후보 측은 이날 ▲문안심(문재인-안철수-심상정) 연대 ▲민생혁신 ▲새정치 ▲투표율 제고 ▲TV토론

등 대선승리를 위한 5대 필승전략을 마련했다. 유권자 성향별로는 중도층과 부동층,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부산·경남(PK)을 공략 포인트로 삼고 있다.

또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시민사회까지 범야권 대선 공조기구인 국민연대가 출범함에 따라 범야권 대결집을 끝내고 박 후보와의 선명한 일대일 구도를 이뤄 유권자의 선택 기준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민생혁신과 정치개혁을 기치로 한 정책 행보도 종반전 전략의 핵심 포인트다. 그동안 안 전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가 완결되지 못해 문 후보가 준비한 각종 정책공약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안대희 위원장이 9일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박근혜 대선후보의 정치쇄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 창세진 가계부채특위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영등포당사 기자실에서 가계부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현 “문과 친노, DJ 깎아 내렸다”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이 9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겨냥, ‘호남 홀대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단장은 이날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 후보를 비롯한 친노 세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위를 깎아 내리는 등 호남을 지속적으로 차별했다”며 “이런

인사가 호남의 아들을 자처하는 것은 소가 똥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이어 문 후보 등 친노 세력이 △DJ의 민주당 분당을 통한 노무현 열린우리당 창당 △DJ특검과 DJ도청 수사 △부산정권 선언 △호남 출신 중간 공직자 출대 △호남 고속철 유예 추진 △호남 현안 사업 외면 △경선·대선 호남 지지 의미 왜곡 등 ‘호남 7거지악’을 저질렀다고 비판

했다. 이 단장은 이어 “새누리당은 이번 대선에서 호남에서 두 자릿수 득표율을 얻는 것이 소원”이라며 “호남의 30년 변함없는 지지에도 불구하고, 늘 실망을 준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 단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호남 인사 차별과 홀대도 도를 넘고 있어 호남 민심에 두 자릿수 지지율 호소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자성한 뒤, “박 후보는 대통령 인사탕평으로 상처 입은 호남 민심에 다가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손학규·정동영·신계륜

호남서 문 지원 ‘세물어’

민주통합당이 야권의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의 민심 변화를 막기 위해 주말과 휴일 손학규·정동영 상임고문과 신계륜 문재인 후보 특보단장을 광주·전남에 집중 투입해 민심 잡기에 전력을 다했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지난 7일과 8일 이들 동안 광주·전남을 돌며 문 후보 지원유세를 펼쳤다. 손 고문은 7일 순천시 아랫시장과 여수 서시장, 목포시 하당 등서 문 후보 지지를 호소했

다. 8일에는 광주 전역을 돌며 강행군을 펼쳤다. 정동영 상임고문도 7~9일까지 2박3일 동안 광주와 전남에서 릴레이 지원유세를 벌였으며, 선거일까지 호남지원유세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고문의 ‘호남 올인’은 광주에 상주하고 있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맞상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신계륜 단장도 휴일인 9일 광주·전남을 방문해 유세 지원에 나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새정치 광주·전남연대’ 내일 출범

정당·시민사회 등 참여

광주·전남지역 제 정당, 시민사회, 종교계, 통일, 노동·농민계 등이 참여하는 ‘정권교체를 위한 새 정치 광주·전남연대’(이하 새 정치 연대)가 11일 광주 YMCA무진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새 정치연대는 출범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범야권 단일후보의 승리를 위해 투표참여 독려운동 등 구체적인 향후 행동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 7일 광주YMCA 무진관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새 정치연대 결성을 합의했다.

새 정치연대는 “이번 대선이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 사회경제적 차별을 시정할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새누리당의 집권연장과 유신독재 부활을 막기 위해 진보와 보수, 정파를 떠난 지역의 제 세력이 단결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가 라운지

이정희, 인화학교 공정재판 촉구

통합진보당 9일 “이정희 대선 후보가 최근 ‘인화학교 성폭행 가해자의 항소심 재판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7일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출발점은 장애인, 피해자의 처지에 서는 것”이라며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존엄을 지키는 태도를 보여달라”고 재판부에 주문했다.

또 “통합진보당은 재판부의 장애에 대한 무지, 인권의식 결여에 분노하고 강력히 규탄한다”며 “광주지방법은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강지원 “대선후보 정책경쟁 하자”

무소속 강지원 대선후보가 지난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후보들이 이미지, 이벤트 선거에 빠져 말쑥을 주고 생선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 나는 지난 7년 동안 정책중심의 매니페스토 실천 운동을 전개하자고 주장한 사람들 만큼 이미지, 이벤트 선거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사랑과 자비, 홍익의 정신이 넘치는 나라, 극단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가 이뤄지는 나라, 편 가르기와 싸움질이 아니라 화합과 통합이 흐르는 나라를 만들자”고 말했다. 또 강 후보는 대기업에는 더 큰 자유와 책임, 중소기업과 서민에게는 더 큰 지원, 100만 명 귀농 귀촌 추진, 거국내각 구성 등 자신의 10대 공약을 거듭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소액/공동투자 가능
▶1인 1물건 추천
▶회비 550만원

(주)오천경매

H.010-4605-5000
T.062-525-5000

못 받은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환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12층 |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행동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추천 물건 상담전화 010-5879-0005		추천 물건 상담전화 010-8227-7759	
☞ 수기동 [근린시설 4층] 대652㎡, 건2387㎡ 감정가 14억, 최저가 4억5천	☞ 속박시설 [치병동] 대704㎡, 건2042㎡ 감정가 32억, 최저가 22억	☞ 북구 대촌동 [2층공점] 대지 1506평 > 건물 1031평 > 감정가 39억8천 > 매매가 25억5천	☞ 화정동 [청기외에식장] 대지 330평 > 건물 1357평 > 감정가 41억5천 > 매매가 20억 (협의후결정)
☞ 나주남평 [주유소] 대4428㎡, 건553㎡ 감정가 10억6천 최저가 6억8천	☞ 신안면 [화합 판매시설] 대4706㎡, 건1123㎡ 감정가 18억 최저가 10억	☞ 군산 [바이오에너지공점] 대지 3025평 > 건물597평 > 감정가 99억4천 > 매매가 38억 (협의후결정)	☞ 목포 상동 [속박시설] 대170평, 건544평 감정가18억6천, 최저가13억1천
☞ 전북김제 [물류센터] 대8076㎡, 건5004㎡ 감정가 25억, 최저가 8억	☞ 전주시덕진구 [유통주점] 대665㎡, 건988㎡ 감정가 11억4천, 최저가 5억8천	☞ 무안 망운 [속박시설] 대257평, 건346평 감정가11억, 최저가6억42천	☞ 여수학동 [근린상가] 대136평, 건513평 감정가15억, 최저가 10억45천
☞ 화순이양 [공점] 대6536㎡, 건2056㎡ 감정가 9억8천 최저가 2억8천	☞ 보성읍 [상가] 대685㎡, 건763㎡ 감정가 7억2천 최저가 1억5천	☞ 화순 도곡 [무인텔] 대1904㎡, 2,262㎡ 감정가 26억7천, 최저가 18억7천	☞ 광산구 신항동 [대지] 대150평 감정가8억7천, 최저가6억1천
☞ 충장로 [근린주택] 대215㎡, 건306㎡ 감정가 4억6천 최저가 2억	☞ 목포대양동 [수양관] 대1786㎡, 건408㎡ 감정가 4억8천 최저가 1억7천	☞ 나주중앙동 [근린상가] 대330평, 건480평 감정가123억1천, 최저가16억2천	☞ 서구 치평동 [속박시설] 대213평, 건617평 감정가132억, 최저가122억4천
☞ 광산구 월계동 [상가] 대135평, 건81평 감정가6억3천, 최저가3억6천		☞ 북구 용진동 [공점] 대700평, 건423평 감정가22억7천, 최저가14억6천	

임대 및 매매

김수희 공인중개사

010-8567-4600

▶ 12월중순open 예정인 (주)솔향기맑은터에서 업계최고의 대우로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를 모집니다.

• 찬모(여)2명, 설것이(여)1명, 홍서빙6명, 매니저(남,여)2명, 매점(여)1명, 경리(여)1명, 영업부(남,여)2명

• 복리후생 : 대내외복, 퇴직금, 월회복후, 급료 : 업계최고 대우 및 성과상여금

• 근무처 : 나주시남평읍 동원리 171번지 서류접수시 면접, 상담가능(시간예약) H.010-7570-7525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게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묵옥당
- 고시원
- 다자구주택(원룸, 투룸, 스리룸)

<토지구함>

- 지역 : 광산구 도현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 ~ 300평, • 용도지역: 자연녹지 • 용도 : 주차장
- 청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전입가능지역 광주 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각실 20개 대출 4억2천 매도가 8억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상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대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변, 농지전용 완료, 매대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현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장 청고용도로 적합

- 비포장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향평면, 장성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 무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